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 경제적 영향

김동겸 선임연구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 수는 1,901만 가구로, 2043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가구구조 변화에 있어 특징적인 점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가구주의 고령화, 여성 가구주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이에 따라 이들 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및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통계청(2017)¹⁾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 수²⁾는 1,901만 가구로, 2043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인구는 2031년을 기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가구 수는 1인 가구증가 등 가족 분화현상으로 2043년 2,234만 가구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평균 가구원 수는 2015년 2.5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5년에는 2.1명에 이를 전망

■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의 특징으로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가구주의 고령화, 여성 가구주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가구유형별로는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 27.2%에서 2045년 36.3%로 확대될 전망이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2.3%에서 15.9%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그림 1> 참조)
 - 1인 가구 증가는 20~30대는 만혼 현상, 40~50대는 이혼 및 가족과 떨어져 사는 중년남성 증가, 60대 이상의 경우 고령화와 사별에 따른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음
- 둘째, 가구주 연령별로는 40~50대 가구주³⁾가 전체 가구 대비 48.0%로 가장 많으나, 2045년에

1)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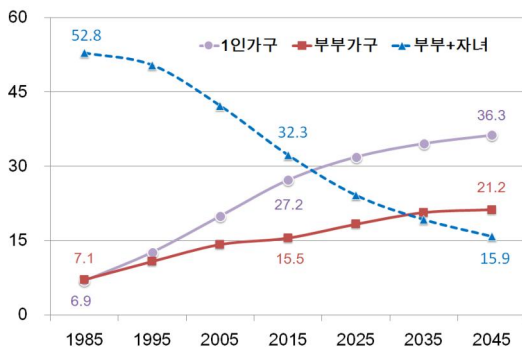
3)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이 가구주가 됨

는 60~70대 고령 가구주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그림 2〉 참조)⁴⁾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9.3%에서 2045년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1인 가구에 있어서도 30대 비중이 2015년 기준 18.5%로 가장 높으나, 인구고령화의 여파로 2045년에는 1인 가구 중 7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5%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

〈그림 1〉 전체 가구 대비 가구유형별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통계청(2017)

〈그림 2〉 가구주 연령별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통계청(2017)

- 셋째, 여성 가구주는 2015년 기준 29.4%(559만 가구)에 불과하나,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에 따른 미혼 가구 증가, 이혼 증가 등으로 2045년에는 3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표 1〉 참조)⁵⁾

〈표 1〉 가구주 성별 가구 수 전망

구분	남성				여성			
	2015	2035	2015	2035	2014	2039	2015	2035
가구수(만 가구)	1,343	1,400	1,413	1,379	559	701	793	853
비중(%)	70.6	66.6	64.0	61.8	29.4	33.4	36.0	38.2

자료: 통계청(2017)

- 가구주의 성과 연령,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소비생활 패턴과 소득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가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 소득분배 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4)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5년에는 남자 70대 가구주가 13.6%로 가장 많을 전망이며, 여자의 경우도 80세 이상 가구주가 7.8%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

5) 남성 1인 가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 1인 가구 수는 50대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 보건, 주거 관련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30~40대 가구는 교육, 문화, 음식·숙박, 교통 등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음
-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자 생활하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애완동물 관련 용품 시장, 여행산업 등이 성장하는 추세임
- 1인 및 고령·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은 평균적으로 타 가구에 비해 낮아 이들 계층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⁶⁾
 - 2015년 기준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각각 45.3%, 31.3%로 전체 가구(12.8%)에 비해 높은 상황임⁷⁾

〈표 2〉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현황

가구소득 (단위: 만 원)	성별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전체
	남성	여성	1인	4인	40~49세	60세 이상	
평균	5,566	2,549	1,825	6,783	5,933	3,033	4,883
중앙값	4,684	1,800	1,200	5,951	5,040	1,852	4,0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 1인 및 고령 가구주 가구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타 가구 유형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사회적 고립 및 단절 현상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표 3〉 주요국의 가구주의 1인 가구 및 고령 가구 구성 비중 전망

구분	한국		일본		영국		호주	
	2015	2035	2015	2035	2014	2039	2015	2035
1인 가구 구성비(%)	27.2	34.6	33.3	37.2	30.3	30.7	24.7	26.5
65세 이상 가구 비중(%)	19.3	39.2	35.7	40.8	28.5	37.0	-	-

자료: 통계청(2017)

- 우리나라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1인 가구 증가와 가구주 고령화 현상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들 계층의 생활실태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6) 여성 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7) 보건사회연구원(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8)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9.3%에서 2045년 47.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